

노동뿐만 아니라 **농어**의 가치도 존중되는 사회, 무기문을

현 대

홍성태 지음

한 국

사 회 의

문

화 적

형 성

실용문화연구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는 사회, 소수자와 약자의 이익이

홍성태

1965년 한여름, 서울 청량리에서 태어났다. 그래서인지 몸도 마음도 뜨거운 편이다. 어려서부터 책과 예술과 자연을 좋아했다. 텔레비전 보는 것도 어려서부터 대단히 좋아했다. 1985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했다. 1991년 가을부터 대학원 과정을 시작하면서 김진균 선생께 학문과 세상과 인생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산을 좋아하고 술을 즐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여러 일에 밀려서 산을 자주 찾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아쉽다. 산에서는 나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다 편안해진다. 2001년 3월부터 원주에 있는 상지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시민운동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 2000년 초부터 2002년 초까지 문화연대에서 건축가 정기용 선생과 함께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공간운동을 펼쳤다. 2003년 초부터 참여연대의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쉼 없이 많은 글을 쓰고 시민운동에 참여했다.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나름대로 부지런히 실천한 결과다. 사회학자로서 이 사회의 문제를 찾아내고 설명하는 데 본능적인 관심이 있으며, 또한 시민으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생태복지사회의 형성을, 학문적으로는 식민성의 극복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다.

저서

- 《군신과 현대사회》, 문화과학사, 1996(김진균 공저)
- 《사이버사회의 문화와 정치》, 문화과학사, 2000
- 《위험사회를 넘어서》, 새길, 2000
- 《현실 정보사회의 이해》, 문화과학사, 2002
- 《반미가 왜 문제인가》, 당대, 2004
- 《생태사회를 위하여》, 문화과학사, 2004
- 《서울에서 서울을 찾는다》, 궁리, 2004
- 《지식사회 비판》, 문화과학사, 2005
- 《생태문화도시 서울을 찾아서》, 현실문화연구, 2005

A32 4647



홍성대 지영

현대

현대 한국사회의 문화적 형성

한국

사회의

문화적

07 07
04647

형성

한글서체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현대 한국사회의 문화적 형성 / 홍성태 지음. -- 서울 :
현실문화연구, 2006

p. ; cm

참고문헌수록

ISBN 8992214065 03330 : \18000

331.5-KDC4

306-DDC21

CIP2006002093

진정한 '선진사회'란 권력만이 아니라 양심의 가치도 존중되는

홍성태 지음

현대

사회, 무관심한 환경에서 땅의 공적 가치를

지키는 사회, 극우파가 더 이상 정치적 영향

한국

를 발휘하지 못하는 사회, 미국이 제멋대

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는 사회, 소

사회의

수자와 자의 이익이 사회적으로 존중되

는 사회, 잘 보존된 자연이 무엇보다 소중한

문화적

차이로 여겨지는 사회, 부패가 비리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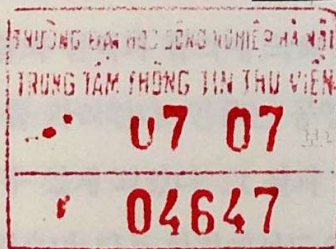
가 될충이 육에 간혀 정치의 나날을

형성

보이는 사회, 영타리 정치꾼들이 모조리 실

업자가 되어 민생을 가리키는 사회

청소년들이 학력 경쟁에 내몰려 아까운 정



진정한 '선진사회' 한국을 위하여

1.

현대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다소 모호하다. '현대'라는 말이 단순히 '현재'와 가까운 시간을 가리킨다면, 현대사회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를 가리킬 것이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지금 이 세상에는 커다란 질적 차이를 가진 다양한 사회들이 존재하고 있다. 결혼제도만 보더라도 일부일처제뿐만 아니라 일부다처제와 일처다부제도 있다. 여전히 수렵과 채취로 삶을 이어가는 '후진' 사회가 있는가 하면, 수많은 인공 화합물로 심각하게 병든 '선진' 사회가 있다. 그러므로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현대사회라는 말을 쓰는 것은 무의미하기 십상이다.

현대사회는 무엇보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 사회를 뜻한다. 첫째, 그것은 '민주사회'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정치적으로 평등하다는 원리 위에서 있다. 따라서 원리상 민주사회는 모든 사람의 선택과 합의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된다. 둘째, 그것은 '공업사회'를 가리킨다. 인류는 공업의 발달을 통해 자연을 대대적으로 가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한편에서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도 역시 유례없는 생태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특징으로 보자면, 사실 현대사회는 근대사회와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구태여 현대사회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체로 현대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사회를 하나의 모범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것은 고도로 발달된 근대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주의의 원리가 실제로 전체 사회 구성원에 대해 적용되고, 공업의 발달로 이른바 '풍요사회'의 도래가 선언된 사회였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라는 용어는 근대사회라는 용어보다 더욱 당대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 변화를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근대사회와 구분해서 현대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2.

근대사회든 현대사회든 자본주의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란 자본, 곧 돈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의 조직 및 운영원리를 뜻한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너무나 크게 성공해서 사실상 현대사회는 자본주의에 따르는 '자본사회'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대립한다. 민주주의는 만인의 평등이라는 원리 위에서 있는 반면, 자본주의는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의 지배라는 불평등의 원리 위에서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좋은 사회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완전히 구현되는 사회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실현할 수 없을 것 같다. 현실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좋은 사회는 결국 민주주의의 원리로 자본주의의 문제를 통제하는 사회일 것이다. 예컨대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 따른 보상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불평등 구조를 악화하거나 신분적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능력과 노력의 차이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인권이나 사회의 발전에 해가 될 수 있으며, 불평등 구조를 악화하거나 신분적 차별을 용인하는 것도 당연

히 그렇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의 지구화는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원리를 극단적으로 추구한다. 이를테면 신자유주의는 현대사회를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사회로 만들고자 한다. 승리한 자는 모든 것을 갖지만 패배한 자는 노숙자가 될 권리밖에 가질 수 없으므로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거의 '전쟁'과 같은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요청이다. 오늘날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분명히 신자유주의다.

이와 함께 현대사회는 생태위기에 직면해 있는 '위험사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대사회의 풍요는 생태위기라는 거대한 위협을 대가로 치르고 얻은 것이다. 자본주의만이 아니라 그것을 물질적으로 지탱하는 공업 자체가 생태위기의 근원이다. 따라서 좋은 사회는 자본주의를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태위기를 완화하는 것으로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전제 위에서 우리는 머지않아 도래할 공업 문명의 종말을 지금 여기서 대비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후손이 이 세상에서 계속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보다 절박한 과제다.

3.

현대사회로서 한국사회는 해방과 함께 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 아래서 한국은 근대사회의 형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식민지 조선은 무엇보다 민주사회가 아니었다. 근대사회의 원리에 비추어 보자면, 민족적 지배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전근대적인 것이다. 만인의 평등은 한 사회의 범위를 벗어나 인류 전체로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국주의는 근대의 힘으로 무장한 고대의 지배방식이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식민지 조선에서 파행적이고 기형적인 경제와 문화의 변화를 이루었다.

해방은 식민지 조선에서 근대사회가 형성될 수 있는 역사적 계기였다. 하지만 그것은 해방과 함께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정치의 측면에서 오랫동안 독재가 지속되었다. 독재는 민주주의를 내세운 반민주주의를 뜻한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폭력과 야만의 문제를 낳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무질서와 무체계의 문제를 낳는다. 요컨대 독재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회를 만든다. 독재자가 사회를 운영하는 실질적 주체이기 때문이다. 독재는 법이 아니라 폭력과 부패가 사회를 운영하는 실제 원리인 '이중질서 사회'를 만든다.

4·19혁명을 통해 이승만이라는 독재자를 몰아내고 근대사회가 제대로 형성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5·16쿠데타를 통해 박정희라는 더 강력한 독재자가 등장했다. 10·26사건으로 박정희가 비참한 최후를 맞고, 다시 근대사회가 제대로 형성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전두환 일당이 12·12쿠데타와 5·18광주학살이라는 잔악한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했다. 6월항쟁을 통해 비로소 우리나라에 근대사회는 제대로 형성될 수 있게 되었다. 정부 수립 이후 무려 4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르고서야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의 원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이다.

4.

오랜 독재로 말미암은 '정치지체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나라의 경제와 문화는 놀라운 변화를 거듭했다. 한 세대가 지나가

기도 전에 가난한 농업사회는 부유한 공업사회로 탈바꿈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폭발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의 문화적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변화는 정치에도 영향을 미쳐서 독재를 무너뜨리는 기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지체 현상을 개혁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며 한국은 '현대사회의 형성'이라고 해도 좋을 변화를 이루었다.

□ 그런데 같은 현대사회라고 해도 그 안에는 큰 차이가 있다. 독일, 스웨덴,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은 서로 크게 다르다. 현대사회가 이른바 '선진사회'는 아닌 것이다. 그리고 '선진사회'들 사이에도 커다란 사회적 차이가 존재한다. 오늘날 한국은 지금까지 이룬 거대한 성과 위에서 '선진사회'를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이 과제를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으로 크게 오염된 구분에서 벗어나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과제는 결국 민주화와 합리화, 그리고 생태화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거대한 문화적 변화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 책은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이룬 성과와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본 여러 글들을 모은 것이다. 박정희의 개발독재에 맞서 시인 김수영이 오래전에 일갈했듯이, 문화는 정치나 경제와 달리 집중적 계획을 통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나 경제의 변화를 예민하게 반영하며, 또한 정치나 경제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진하기도 한다. 또한 문화는 예술이나 산업이나 여가이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생활이며 의식이다. 따라서 문화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이 주체인 현대 한국사회의 변화를 더욱 올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환상물'에서 '노퐁'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글의 형태도 긴 논문에서 비교적 짧은 산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이 책의 글들은 모두 문화적 변화에 대한 물질적 이해라는 동일한 방법론에 입각해 있다. 문화는 물질적 변화와 무관한 정신적 산물이 아니라 사실상 물질적 변화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현대 한국사회의 형성사가 잘 보여주듯이 물질적 변화는 그 자체로 거대하고 세밀한 문화적 변화를 낳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활과 의식은 대단히 거칠고 야비한 성격을 강하게 지니게 되었다.

문화는 삶의 질에서 핵심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삶의 질을 중심에 두는 '선진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반공주의나 군사주의, 남성주의, 지역주의, 학벌사회, 투기사회, 토건국가, 정경유착, 재벌체제, 생태위기, 학문의 식민성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과 공명하며 동반한다. 이 책은 이런 노력의 산물이다. 우리의 현실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문제를 찾아내 해결하려는 이 노력이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한 출판편집자는 내 글들을 보고 외국 문헌을 거의 인용하지 않아 딱딱해 보인다고 노골적으로 거북해했다. 나는 그에게 외국 이론의 수입으로 연명하는 한국학문의 식민성에 맞서는 노력의 결과라고 답변했다. 미국 박사가 지배하는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출판 분야도 식민

성이라는 병을 깊이 앓고 있는 듯하다. 자기도 모르게 식민지화한 출판 편집자들과 달리 내 노력을 이해하고 이 책의 출간을 선뜻 결정해준 현 실문화연구의 김수기 사장님과 다양한 글들의 편집 작업을 하느라 고생한 이시우 씨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 허영우 글두장 '선진사회' 발행부

2006년 9월 22일

월계동에서 홍성태

고도성장과 문화적 다양화

111 고도성장이러는 문화적 다양화 - 공헌을을 이회조두장 이회사두장
사대갈등과 문화정치 8003 니드물 은 중 이회당 이회우 글두우
고유과 방송을 상변디회용외회중 유무제 이회당 이회사 이 '중
'한상일' 이 구별공공한상등 문갑디사우회중 이회당 이회사 이우용
내 발상 회의 민족주의? 253

향방 이회문 이회크물

민주화와 문화적 다양화

101 이회 이회당 이회사 이 '상방 이회문'에
SMF의 광고 속의 민주주의 2007 2월11이이 이회도 이회문'에 김고물
001 3차문'에이회'에 문'이이'에 이회 - 이회'에 이회'에 이회'에
한 이회'에 이회'에 이회'에 이회'에 이회'에 이회'에 이회'에
김민 대중문화 개방의 문화정치 3171 선진상 이회문 이회크물
보수주의의 이회'에 이회'에 이회'에 이회'에 이회'에 이회'에 이회'에 340

주 367 광고문헌 390

차례

진정한 '선진사회' 한국을 위하여 5

1 한국사회와 문화변동

한국사회의 재구조화와 문화변동 - 생태적 문화사회를 향하여 - 17

누구를 위하여 '문화의 종'은 울리나 38

'노푼'의 사회적 형성과 새로운 정치운동의 가능성 54

황우석 사태의 형성과 전개 - 사기와 맹신의 이중주 - 71

2 월드컵의 문화적 영향

'붉은악마 현상'의 사회적 형성과 의미 103

월드컵, 붉은악마, 그리고 이야기들 120

'붉은악마 현상'과 사회 바꾸기 - 우리 곁의 '다른 사회'를 찾아서 - 150

2002년 한·일 월드컵과 한국사회 166

월드컵 응원의 상업화 177

한국사회와 문화변동

3 고도성장과 문화적 다양화

- 근대화와 어린이 191
- 세대갈등과 문화정치 203
- 교육과 불평등 -학벌사회의 멧돌- 224
- '환상물'의 유행과 '상상력 산업' 236
- 내 밥상 위의 민족주의? 253

4 민주화와 문화적 다양화

- IMF와 광고 속의 민족주의 267
- '50년 전쟁체제'의 사회적 결과 -비정상성의 정상화- 279
- 한·미동맹의 문화적 결과 -영혼의 미국화- 300
-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문화정치 318
- 보수주의의 이중적 변화와 일상적 보수주의의 등장 340

현대 한국사회의 문화적 형성

지은이 홍성태

펴낸곳 현실문화연구

펴낸이 김수기

편집 이시우 좌세훈 허경희

디자인 권 경

마케팅 박성경 오주형

제작 이명혜

첫 번째 찍은 날 2006년 10월 10일

등록번호 제1999-72호

등록일자 1999년 4월 23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190-11 반석빌딩 4층

전화 02)393-1125

팩스 02)393-1128

전자우편 hyunsilbook@paran.com

값 18,000원

ISBN 89-92214-06-5 03330



고삐 풀린 현대성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아르준 아파두라이 Arjun Appadurai 지음, 차원현·채호석·배개화 옮김, 408면)

초국가적 세계의 전 지구적 문화에 대하여 심도 있게 탐구한 문화 인류학자 아르준 아파두라이의 저서. 그 자신이 가진 방대한 인류학 문헌에 근거한 고도의 세계관으로 세계 사회의 사회적 현상을 낱낱이 기술한다. 국민국가의 종말, 이산, 새로운 현대성, 탈영토화, 문화의 개념, 탈식민주의, 지역성의 생성, 상상력의 작업과 문화적 풍경을 조명하고 있다.



현대성과 현대문화 Formations of Modernity
(스튜어트 홀 Stuart Hall 외 지음, 전효관 외 옮김, 497면)

이 책은 현대사회의 출현을 이야기하고 현대사회에 특징적 면모를 부여했던 형성 과정을 다룬다. 또한 사회과학의 전 역사를 통해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입증되어 온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현대사회가 출현했는가? 현대사회는 어떻게 자신의 독자적인 유형과 구조를 갖게 되었는가? 현대사회의 발전을 형성했던 중요한 과정은 무엇이었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 현대사회를 범세계적 현상으로 간주하며, 또한 현대세계를 단일한 역사적 변동이 아닌 일련의 주요한 역사적 변동들이 가져온 결과로 다룬다.

노동뿐만 아니라 놀이의 가치도 존중되는 사회, 무기꾼을

획일해서 땅의 풍적 가치를 지키는 사회, 곡우씨가 더 아

이 책은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이룬 성과와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문화적 관점'에
서 살펴본 여러 글들을 모은 것이다. 박정희의 개발독재에 맞서 시인 김수영이 오래전에 일갈했듯
이, 문화는 정치나 경제와 달리 집중적 계획을 통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
나 경제의 변화를 예민하게 반영하며, 또한 정치나 경제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진하기도 한다. 또
한 문화는 예술이나 산업이나 여가이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생활이며 의식이다. 따라서 문화의 변
화를 통해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이 주체인 현대 한국사회의 변화를 더욱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 <진정한 '선진사회' 한국을 위하여> 중에서 -

이념을 가 버린 사회, 청소년들이 학력 경쟁에 내몰려 아

까운 정춘을 소모하지 않는 사회, 남과 북이 통일되어 이

산가족의 피맺힌 한이 끝나는 사회, 노동뿐만 아

나라 놀이의 가치도 존중되는 사회, 무기꾼을 획일해

땅의 풍적 가치를 지키는 사회, 곡우씨가 더 이상 정지

영양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회, 마약이 제멋대로 지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는 사회, 소수자와 약자의 이익이

값 18,000원

